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국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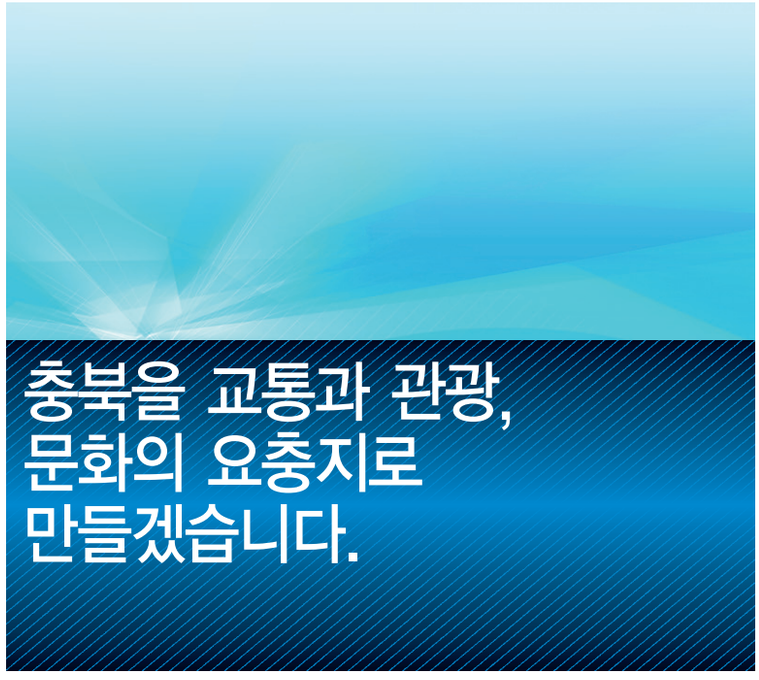
대한민국 새 물길, 새 희망의 고장

교통과 관광·문화의 요충지

충청북도

충북을 교통과 관광, 문화의 요충지로 만들겠습니다.

1.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
2. 청주·오창지역을 국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육성
3. 제천·단양지역에 의료산업 육성 및 약초특화단지 대대적 조성
4. 충북도내 북부·남부지역을 세계적 관광휴양명소로 조성
5.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기 구축
7. 중국마을(China World) 조성사업 추진
8.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9. 낙후지역 발전 특별대책 추진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010년 준공(부지조성 2008년 완료)을 목표로 463만 3,000㎡(140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국가전략산업단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명공학의 R&D와 산업화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오송신도시권을 'Bio경제특구'로 지정

- 「오송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Bio Mecca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송신도시권의 설정 및 권역의 특성화 육성발전 방침을 제시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BT기능 집중화 지원과 투자 및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 오송신도시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해 내륙과 하늘을 잇는 BIO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자본·기관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 생명산업 중심지(BTMecca)로 위상 강화

- 'BIO KOREA 2008 오송' 을 국가 대표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BIO KOREA 박람회를 앞으로는 BIO Mecca오송에서 개최하고 특히, Bio 관련 전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미국의 BIO EXPO 수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 오송국제바이오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BIO KOREA 행사와 연계하여 국가 주요 Bio관련 민·관·학·연, 미국 몽고메리 시 등 Bio 선진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창설하여 학술발전과 정보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BT관련기능을 오송에 집적화

- BT 관련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오송단지에 BT 원천기술 개발, 산업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산업화에 필수적인 생산시스템

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신의약제상용화센터, 천연물신약 개발센터, 재생조직공학 전문병원, 조직은행, BIO 공정센터, 생산전용시스템(cGMP), 전·임상시스템(CRO), 글로벌 cGMP 인력개발센터, 아시아바이오지식네트워크센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건설하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오송단지가 세계 유수의 Bio단지와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필수적입니다.
- 오송단지에 이미 입주가 확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대 국책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BT관련 지원 인프라 구축

-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오송국제바이오포럼 및 BIO KOREA 박람회와 연계된 기반시설로 오송단지를 아시아 최고의 생명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 수도권 배후, 세종도시, 대덕, 오창 등 풍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국제시설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완벽한 접근성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오송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대규모 전시장, 국제규격의 콘퍼런스 시설, 옥외전시장, 쇼핑몰, 주차시설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Bio우수 영재고교 설립

- BIO우수 영재고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교 형태를 우선 검토(민자 유치 가능 경우)하고 충북도 또는 국가의 설립·운영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기존의 자사고와 특목고 이전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일한 국가 Bio 전문단지인 오송단지를 설립해 입주 중인 산·학·연과 연계한 우수인재의 양성·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21세기 인류발전의 원동력인 Bio분야 영재를 조기 발굴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양성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



청주·오창지역을 국가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육성

충북에는 하이닉스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동부아남반도체 등에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반도체산업의 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창에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차세대반도체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지원센터가 구축·운용되어 반도체 설계부터 테스트에 이르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산업의 추격을 뿌리치고 일본과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적 집적단지의 조성과 육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중심인 충북(오창)에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HUB 구축은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의 핵심과제입니다.

정책공약

반도체 시스템 IC 개발 전문단지화를 위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건립

-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시스템 IC 설계 전문 기업들의 전용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을 집적화해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스템 IC 분야별 개발동 4~5개동을 건축하겠습니다.(100여개 기업공간)

시스템 IC 개발 원스톱화를 위한 미니팹 구축

- 시스템 IC 기업들이 신제품 테스트 및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기존의 대형 파운드리 이용시 요구되는 고비용과 같은 대형 파운드리의 한계를 해결하겠습니다.
- 미니팹 구축으로 중소·영세 시스템 IC 업체들의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단순화로 고부가가치 시스템 IC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대전의 나노팹, 경기도 나노팹특화센터, 송도의 특화팹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특화(예 : 아날로그IC)하여 국가 팹의 HUB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팹 건물 건축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반도체 설계전문대학원 설립

- 현재 국내 시스템IC 및 설계 업체들은 심각한 중견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어 전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국제적 감각을 갖춘 설계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국가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 기업 인력의 능력 향상과 예비인력의 현장실무화를 위해 반도체 인력교육원을 운용함으로써 현장 및 예비인력의 순환 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 대학원 · 인력교육원을 건축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식서비스 허브로 구축

- 국가 반도체산업의 HUB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공간 창출과 금융,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반도체박람회 유치와 국내 반도체 관련 학회, 박람회 개

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유비쿼터스형 서비스를 구축해 지식거래 및 창출을 위한 정주여건을 최적화하겠습니다.
- 국제컨벤션센터, 교육·문화센터, 금융지원센터, 유비쿼터스 시설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제천 · 단양지역에 의료산업 육성 및 약초특화단지 대대적 조성

충북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에 위치하여 한약재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 한방산업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명대 한의대, 제천·충주부속한방병원, 전통의약산업센터, 한방바이오산업임상 지원센터(RIC),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단(RIS)을 구성하고 있어 제천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한방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료특화지인 충북 제천·단양지역에 의료·휴양산업을 육성하고 약초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약초웰빙특구 지정, 에코세라피 등) 아울러, 강원권과 동종 산업의 연계 벨트를 조성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정책공약

한방 메디·텔 건축

- 친환경 소재(소나무·흙·돌)로 건축한 호텔식 휴·요양 병원설치로 한방치료와 청정환경 및 관광자원을 건강분야에 활용한 한방보건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생태학습공원과 한의약박물관 건립

- 한국의 사계절과 청정함을 부각한 관광·문화재 자원 개발 및 한약재와 토종 야생화가 어우러진 생태 학습공원 조성과 한의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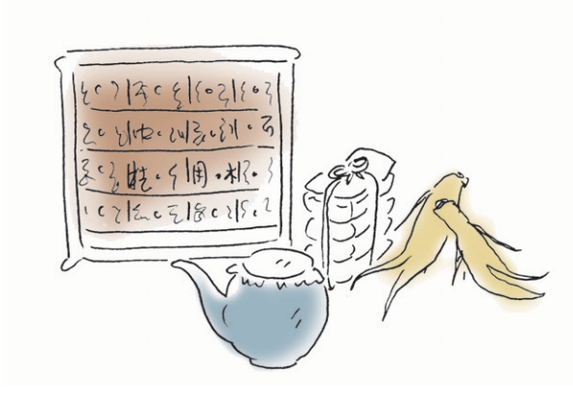
▸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와 전통의약산업센터에 대한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한방벤처타운을 건립하겠습니다.

한약재 특화재배단지 조성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한약재 재배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한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의료·약재·식품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겠습니다.



충북도내 북부·남부지역을 세계적 관광휴양명소로 조성

충북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개의 국립공원과 대청호, 충주호 등 2대 호반을 포함한 수려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호는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내륙지역의 한계로 관광 관련 개발프로젝트가 미미한 편입니다.

내륙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충주호 주변 낙후 지역의 개발을 도모해야 합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잇는 충주호 100리 길을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화양동, 속리산과 물한계곡, 민주지산으로 이어지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충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충주호 물길(100리) 확보

▸ 단양 수중보 계획지점을 수상관광 연계가 가능한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 중부권역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충주호 유·도선 운항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 새로 조성되는 수위조절댐을 활용해 수상레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륙 물길과 인접한 지역을 세계적 관광 휴양명소로 개발

▸ 수변공간과 자연녹지가 조화를 이룬 세계 수준의 관광휴양촌을 건립하겠습니다.

- 중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충주호 주변 국민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 수변공간과 자연녹지가 조화를 이룬 관광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 천혜의 관광자원 밀집지역인 단양 도담지구 관광패밀리 휴양타운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휴양명소 개발

-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등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물한계곡 · 민주지산 · 와인을 패키지로 한 체험관광명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

청주국제공항은 세종시를 비롯한 중부내륙지방의 관문공항이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대덕단지, 오송단지 등이 입주하고 있어 물류허브 공항으로서의 잠재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활주로 및 조업시설 미비로 대형 항공화물기의 이 · 착륙이 불가능해 청주공항 주변 입주기업체가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물류비용 증가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확장, 저가항공사의 국제노선 허브화, 동북아 물류 공항으로 전문화하는 등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동북아 항공의 메카

- 국토의 중심인 청주공항을 저가항공사의 국제노선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 물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여 동북아 항공화물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공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기 구축

오송·오창단지를 비롯한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역 내에 연구·생산 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송단지(463만 3000㎡)에 50여개 BT업체, 오창(945만㎡)단지에 120여개 IT업체가 입주중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강점을 더욱 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연구시설 및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생산기반시설 및 국제비즈니스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기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BINT 기술융합 및 연구·생산·비즈니스가 결합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해 인근지역으로 시너지를 확산하겠습니다.

정책공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범위 확대

- 대덕연구단지, 세종시, 오송·오창단지에 생산기능을 갖춘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진천·음성을 포함시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시설 및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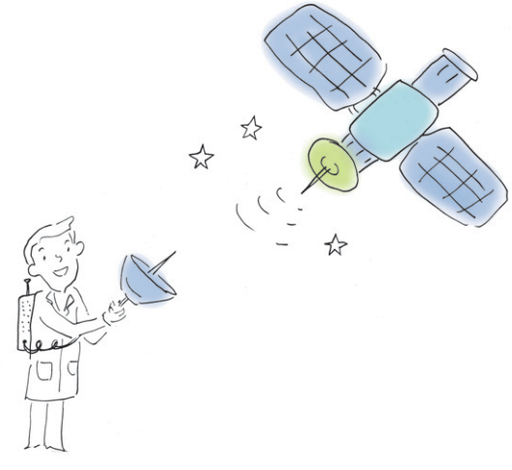
- 연구지원 기관을 조속히 입주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단지 내 조성, 보건산업진흥원 등 5대 국책기관 조기 이전,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민간연구소 유치, 바이오연구타운·노화종합연구소·바이오공정지원센터 구축, BIN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반도체설계 디자인하우스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BT전문대학원 건립, 반도체 관련 대학·연구소간 네트워크 구축, 아날로그 IC 설계 전문인력 양성지원센터 운영, '차이나월드' 지구 내 외국인 전용학교 설립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

-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른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청주·오창·증평·음성지역) 지정·운영,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 국내외 IT·BT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 WTC·컨벤션센터 건립, 중국마을 내에 중국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중국마을(China World) 조성사업 추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중국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충북도내에 중국어 교육 전문시설을 조성하여 국내 유일의 중국어 체험교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국민의 국제화 마인드 확산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 및 교역 확대를 위한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미래 충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 월드 조성이 시급합니다.

정책공약

테마공원 조성

▸ 중국을 테마로 한 중국음식 전문점, 한의학 병원, 문화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 국제비즈니스센터, 전시장, 중국산품 판매장 등 중국과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복합쇼핑타운 설립

▸ 모든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쇼핑타운, 휴양·오락·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중국문화원 설치

▸ 중국어 전용학교, 중국문화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편리한 교통망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초가 되는 근원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나, 지역이 낙후돼 있어 중부권의 발전을 위해 교통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충청고속도로를 조속히 건설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추진

- 충청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행정도시·청주국제공항·충주·강원권 연결, 중부권 동서지역 교통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에 2019년 이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경전철, 전철, 오송역사) 건설사업 조기 추진

- 청주·대전간 경전철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2차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청주방향 경부고속도로, 국도 17호선의 포화상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국제공항 교통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
- 천안·괴산·문경간 전철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중부내륙지역의 동서간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내륙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오송역 조기 개통 추진

- 경부·호남 고속철도 교차, 국토의 X축 역할, 행정도시의 관문역, 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오송역사를 조기 건설하겠습니다.
- 천안·청주국제공항 전철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 수도권·서해안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극심한 혼잡지역의 진입·연결도로 조기 건설

- 충주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청주산단·오창산단 연결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발전 특별대책 추진

충북을 비롯하여 백두대간권에 연접해 있는 지역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법적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낙후지역 지정계획에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포함되도록 조정하고, 소백산맥(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3대 국립공원으로 인한 규제)에 인접한 단양, 제천,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정부의 낙후지역 지정(안)에 충북 낙후지역 포함

- 국립공원과 대청호 권역 규제로 인해 충북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속리산 지역 일대' 를 정부의 낙후지역 지정(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충북 괴산·증평·보은·옥천군, 경북 문경시·상주시 포함)
- '경북 북부지역 일대'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의 권역을 조정하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일대'를 '소백산 지역 일대'(중부내륙지역 일대)로 조정하겠습니다.(충북 북부권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을 포함)
-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를 '덕유산 지역 일대' 로 조정하겠습니다.(충북 영동군을 포함)

낙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백두대간 연접지역권 지원 특별법」「내륙도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적극 추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농가주택 공급 등 농촌·산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농·산촌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축산물 등을 친환경 · 고부가가치의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별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도읍육성사업, 택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바이오농업 특화단지 조성 및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남부권 · 북부권 등 낙후지역에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포도·감·대추·사과·약초·마늘 등과 관련한 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보은·옥천·영동지역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지역특산품(대추, 감, 포도, 호두 등) 생산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 농특산품 생산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추·감·포도 등 지역특산품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겠습니다.

